

광주 신규사업 49건 1365억 확보 전남 호남고속철 600억으로 증액

광주·전남 사업들 얼마나 반영됐다

문화전당 콘텐츠 452억, 광주연구개발 특구 조성 91억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남해안 철도 사업 추진 힘들어져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의 예산 확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비 반영률도 해가 거듭할 수록 허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예산 상승률을 보인 내년도 예산에서도 광주·전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척박한 예산 환경 속에서도 광주·전남은 자치단체장은 물론 실국장, 과장, 실무자들까지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며 예산 확보 활동을 벌여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보한 광주·전남의 주력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살펴본다.

◇2015년 광주·전남 주력 사업들=광주시는 내년도 문화·관광분야사업비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452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 342억원, 동구다목적체육관건립 24억원 등 27건 1304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R&D 사업 예산으로 광주연구개발 특구육성 91억원, 하이테크몰드 허브 구축 49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34억원, 김지 전통발효식품 단지조성 35억원 등 53건 2237억원을 배정받았다.

북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9억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96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90억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63억원 등 35건 1조 601억원이 책정됐다.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6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52억원, 북

부순환도로 개설 100억원, 공유주차장 조성 68억원 등 26건 1830억원이 확보됐으며, 이외에도 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21억원, 광주소년원 리모델링 25억원, 재해예방체계 구축 26억원, 구조구급 현장 대응능력 확충 1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건의액 1500억원의 3.3%인 50억원만 부처에서 반영돼 기로에 섰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늘면서 한숨을 돌렸고,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건의액 258억원)도 부처에서는 45억원이 반영됐다가 정부예산안에는 104억원으로 증액됐다.

투융산업 지원시스템 구축(94억원) 역시 12억원에서 44억원으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1000억원)도 733억원에서 908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압해~압대 간 '새천년대교 건설'(2호선)은 전남도 건의액(1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547억원이, 신지~고금 간 연도교 건설(77호선)은 전남도 건의액(200억원)의 84% 수준인 168억원이 반영되면서 가까스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비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비도 각각 30억원과 10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도는 특히 부처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다가가재부 심의에서 살아남 사업도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진도 군내~서망간 도로 개설공사로 전남도 건의액 100억원의 10분의 1인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농축산물 미생물산업센터 건립(75억원) 5억원 등이다.

◇신규사업 반영=광주 '웃고', 전남 '울

■ 광주·전남 주요 신규사업 정부예산안 반영현황(단위:억원)

□ 광주		
사업명	총 사업비	2015년 반영액
전기연구원광주지역조직설립	405	7
광주R&D특구연결도로 개설	440	20
조경광고강성 차체 사시 부품 기술개발	440	15
로봇산업융합 핵심개발 및 상용화	280	28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제2호결성	550	30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250	4
평동3차일반산단 진입도로개설	130	26

□ 전남		
사업명	총 사업비	2015년 반영액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1,765	90
광주 외곽고속도로 건설	3,213	150
해조류 종합 가공단지 조성	250	10
고부가 식품소재 가공지원센터 설립	300	45
농축산물 미생물산업센터 건립	150	5
2015년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	83	18
2016년 장곡제철합력박람회 개최	190	17

고'=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건의한 신규사업이 49건 1365억원이나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7억원) ▲조경광고강성 차체사시부품 기술개발(15억원) ▲로봇산업융합핵심개발 및 상용화(28억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제2호결성(30억원) ▲평동3차 산업단지 진입도로(26억원) 등이다.

반면 전남도는 33개 지역현안 및 신규사업 가운데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통합의료센터 건립(86억원), 2016년 장곡제철합력박람회 개최(17억원),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90억원) 등 7건 335억원에 불과했다.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건의액 200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30억원),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기반구축(50억원),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10억원), 빛가람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55억원) 등은 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들어 아예 정부 반영액이 '0원'이다. 사실상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건설비도 전남도 건의액(1500억원)의 13%인 200억원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가 2억원으로 대폭 감액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성 일자리에 쏠린 눈 18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2014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여성 구직자들이 각 기업체들의 채용공고를 바라보고 있다. 광주시가 지원하고, 5개 여성새일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박람회에는 (주)광주신세계, 일신방직, (주)파리바게트 등 21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채용관을 운영했고, 직업체험관 및 창업홍보관 14개 등이 설치 운영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월호 고통' 진도 경제 활성화 국비 대거 반영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심각한 경기침체 현상을 빚고 있는 진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진도 군내~서망간 도로개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해 전격적으로 국비를 반영한 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진도지역의 피해 확산에 따라 진도읍에서 팽목항까지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 군내~서망간 도로

개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했다. 통상 도로 등 SOC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한다.

군내~서망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2차로인 도로의 선형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95억원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만큼 2017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국비에는 이밖에 팽목항 진입

도로 환경개선사업 29억원과 서망항 준설사업 15억원 등 서망항 기능보강사업비로 44억원이 반영됐다. 또 진도 지역의 관광객 감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광자원개발(신규 22억원)을 지원하고 추모공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며 "그만큼 정부가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진도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광주시 '국비 3조원 시대'서 1조6000억원 추락 왜?

광주시는 작년 이맘때 2014년도에는 사상 첫 국비 3조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실제 올 1월 최종적으로 국비 3조1573억원을 확보했다며 자축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8개월여가 흐른 18일 2015년도 국비 반영액(정부안)은 1조 6086억원이며, 전년 대비 782억원이 증액돼 5.1%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한 점은 금액으로만 무려 1조5487억원이나 줄었는데도 되레 증가했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민선 6기 웅장한 광주시장의 시민에게 시와 관련한 올바른 데이터를 알려주는 시장 철학이 숨겨져 있다. 윤 시장은 국비확보,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각종 업무의 데이터를 부풀려 '시장 지직'으로 악용해온 관행을 모두 척결하

국가 사업까지 억지 포함 부풀리기 거품 빼 정상화 내년도 반영액 절반 빠져

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당장은 타지역이나 이전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듯 보이겠지만, 데이터 부풀리기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광주발전 전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윤 시장은 특히 국비 예산액과 관련해서는 타지역과 연계돼 지역별 중복 계상된 국가사업 예산을 실적에서 빼도록 했다.

실제 광주시가 밝힌 2014년도 국비 3조1573억원 중 KTX 건설비 1조1477억원, 88고속도로 4243억원 등은 타지역과

연계된 사업 예산이 포함됐으며, 이를 제외하면 1조5304억원이 순수한 국비라는 게 윤 시장의 의견이다.

지역별 중복 계상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도 예산시준만 되면 같은 사업을 놓고 동시에 확보 예산으로 발표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 같이 과대홍보를 자랑하는 윤 시장의 행보에 대해 '시민시장'다운 신선한 시도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진기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과거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중복 과다 계상에 따른 국비예산 과대표장 논란을 지적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는 순수하게 광주의 지역 현안에 투입되는 예산만을 국비확보 예산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내년 예산안 분야별 배분액

경제 살리기 안전 투자 역점

복지예산 비중 30% 첫 돌파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여울수

빛여울 수!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은 무등산과 백아산의 청정한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정수약품을 주입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합니다.

- 현재, 상수원수는 좋은 조건의 수질상태 유지
-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물
-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수질연구소에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빛여울 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돗물 절약 실천 사항

- 샤워, 세수, 설거지, 세탁 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시에는 받아서 사용합니다.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절약형 샤워꼭지를 부착합니다.
-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 샴푸, 린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입니다.
-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합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 대표 상수원 - 동복호